

8. 그리스도인의 물질생활(stewardship)

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은 어느 것보다 우리 가까이 있으며, 우리 모든 생활을 관여한다. 이에 대한 성찰/이해 없이는 신앙생활 따로 사회/물질생활 따로하는 이른 바 종교인의 분열된 삶(religious schizophrenia)의 늪에 빠지기 쉽다. 성서가 경계하는 바 mammon(재물)과 하느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(마 6:24 // 눅 16:13)는 가르침인데, 설마....

대전제

- Priesthood of all believers (제자교회 믿음과 실천사항 참조)
- 소명(call)이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깨달음.

A. 헌신과 봉사: 달란트 비유(마태복음 25:14-30)

1. 각자 소명은 다르다. (5 달란트, 2 달란트, 1 달란트)
2. 그러나, 기대치는 같다. (똑같이 100% 남기는 삶) Q: 그런데, 잃어 버리면? 망하면?
 - 초점은 소명/말은 바/달란트를 쓰고 있는가? 낭비/무시하지는 않는가?
 - 표현된 말/글 이면의 뜻은=> 성패라기 보다는 실천.
3.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? 직장 and 사회에서 일관된 삶을 사는가?

B. 십일조

1. 원 의미: 12 지파 중 하나, 곧 레위 족속을 보존 (그러나, 실제 지켜졌는지는 의문. 레위인들도 땅을 소유. 여호수아 14:4 vs. 21 장)=> 성직자 (민 18:11-18)
2. 과부, 고아, 가난한 자(레위인 포함), 소외받은 이들 보호. => 구제 (second tithe? 신 14:28-29). Q: 가난은 나라 임금(king)도 구제하지 못한다는데...
3. 토큰(token): 성별의 의미
 -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. 현실적으로, 1/10 은 상징적 의미.
 - 남은 9/10 도 "하느님의 뜻"에 맞게 사용. 내가 생각하는 "하느님의 뜻"은? (소명과 관련)

어떻게 살까? 힌트

- 한계 정하기—내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는?
- 남은 것을 3 등분 (혹은 4 등분. 초점은 규모있게 쓰기. 예. 하나는 나와 가족의 betterment 를 위해 투자; 하나는 이웃과 친구; 하나는 교회와 가난한 자=> 십일조)